

연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장래사유 발생·회기 노동특성을 ~~유지~~ 조종·선용한 사실이 있는가

•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연장근로법 제102조의 전역 불응인 것이다.

연방 아닌 ~~상호배정이나 상호의~~ 노사 불협력성.

사망의 경우. 장래회기회기 특성조정. 등 제반 배정이나

복수적인 상황에 이르기 까지 현저히 왜곡 될 수 있다

목표로 간 이해는 무엇인가.

• 첫째로 대두로서 노동조합에서 사안 제명. 장래회기 등에 관하여 ~~결정~~ 국민노동조합의 필요를 인정하는 연락을 받았고.

• 둘째: 과거 노동조합 ~ 번두 영사의 분신 사건에서 경찰이 신계로 활취한 선례에 여러번 있었음 물론이고,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이 사망한 경우. 진상조사에. ~~조사하러. 사체발취~~

~~진상~~ 하거나 ~~조사~~ 이후에도 보충 가족은 회피하여 ~~정확한~~ 발동한 선례에 ~~존~~ 있었기 때문에. 민권단체에서 진상조사에 나선 필연이 있었다.

• 셋째: 조사결과 과잉징입에 대한 피해이기는. 거의 고지에

가까운 상의 행위로 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후회~~ 등은 장래회기 후보행사를 통하여

강제적 제정해야 할 ~~일이~~ ~~간사~~ 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일이 없으면 기록자면 장래회기

제정 ~ 방식 등이 진상의 폭로에 법국민적 규탄의 뜻을 보이기 위하여 ~~적극~~ 하는 것이거나 하므로 조사결과에

관하여는 장래회기제에 관하여 유종의 노동조합에게

그러한 뜻을 함께 하도록 조그 만 할 뿐더러 잊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일은 국민노동보육에서 해야 하는가?

당연한 일이고 볼다. 그러나 그일 제법 거대 권위에서는 권위 민족이나 (장성훈, 황선생 등) 와 노조 집행부 기함등은 진상 제정 위원회를 구성, 전래 작업도 국민노동보육 본부의 진상제정위원회등 대책행진 등행은 하였다, 부인함에는 개국적 변화로 권위라는 것이 있어 본연은 변조사이라 국민노동보육 상정위원회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장례위원회라는 어떻게 구성 되었는가. (기쁜 장례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가)

(이변화는 23일 약속에 따라: 장례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여 할 수는 없었다)

- 8.23. 10:00 대우 병원에 도착하여 보니 주민대표 수명¹⁰ 과 노조 집행부 인원 몇사람이 "진상제정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협조 요청한 것도 그 위원회의 활동의 일환이었던 듯 하다.
- 대강의 사태를 파악하고 11:00경 양권식 신부를 보냈다. (그는 그 일주일 전부터 노사간의 협상에 중재역할을¹⁵ 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전날 제법 장례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대강 의 구성은 노동조합에 조언해 주고 싶었고 우리를 보냈을 때에도 그 구성을 말했었다. 그러나 그 구성에 따라 12:00 경 확정된 것이. "전국 노동조합" 의 장례위원회 조직이고, 그이후 24일 오후 11:00경 "국민장" 으로 바뀐 후에도 장례위원회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

이 장례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함의 (12:00 회의)로 구성된 것이고, 그이전에 무슨 위원회가 있었던 일도, 누구의 반발도 없었다.

- 일반 노동자들 은 ~~주~~ 재야人士的 활동을 감내하고 지지 하였던

장지분례에 관한 간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유품 ~~취급~~ 이번 회의로 내가 유족으로 귀속 받는 것은 23일 제막이다.

그 이전에 이미 가족들은 부모로서 ~~부~~ 미혼으로 죽은 자로서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본지를 받든지 않는 것이 좋았으며 화장할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우로서 물에 묻었다고 하자. 그러면 전에 ~~취급~~ 할 뜻으로 죽은 학생 분은 그곳이 어떻가고 하는 말을 하였다고 했다.

그에 따라 23일 12:00. (~~광주시정부와 노조장학위원회~~
노조위원장부의 양신부, 김신부, 본인 등의 연석 회의에서 ~~이러한 이의 광주맹위등을 본지가 귀속 받지는 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광주맹위등 본지로 하기로 결정은 되었다. (장례일자로 5일 광으로 하고, 그동안 장의는 본류 함리는 원자로 여기에서이다.) 이번 회의로는 23일에 ~~노조~~ ~~맹위~~ ~~등~~)

이러한 상례에서 ~~이러한 상례에서~~ 유족으로 받았던 유족으로 장례 본례로 모히려. ~~이러한 상례~~ 유족 보상은 받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했다. ~~이러한 상례~~ 유족들이 그렇게 나오면 모히려 ~~노조~~ ~~맹위~~ ~~등~~ 등에서 장례는 광제로 치르고, 유족 보상은 여기 후일 ~~이러한 상례~~에게 부탁 하면 된다고 하여, 유족은 설득하지 유족이 좋을 때에 하기로 응박한 것임. ~~이러한 상례~~ 장지는 광주 맹위등으로 함성에 함터라 했다. 이어서 즉시 광장에 장지를 열기만 하면 서울 모란공원 민회으로 해도 좋다는 승낙도 하였다. ~~이러한 상례~~ 가족은 ~~이러한 상례~~ 받게 하여 ~~이러한 상례~~ 장지는 ~~이러한 상례~~ ~~이러한 상례~~ ~~이러한 상례~~ ~~이러한 상례~~

이 자리에서 이 번 초사는 분명히 최후의 결정을
비디카지나 ~~특~~ 유독에게 있다는 말을 기증 리얼 d,

~~항상 유독의 애기인 것이다.~~

~~장영지를 공의 광주에 서울로 주상한 이라는 무언의인.~~

~~7월 7일 장지 일제인 무제인 것은 보통 무제인~~

~~완전 유독들이 이미 유독의 한 사상은 뒤의 번복~~

~~하였기 때문에 주야로 노장간 마취법은 지고 유독을~~

~~유독 선 등 하려 하였고 심도 하려는 노장을 계속~~

~~한 것을 번복이 분하게 항위시켜 보던~~

~~재야에 ~~지나~~ 게임의 영향으로 물이 불엿기 때를 ~~다~~~~

이제 걸은 주야로 지내치게 ~~재야의 사상은 이~~

~~재야~~ 게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권한~~ 그리고 주야로 집으로 하러 선 등~~

~~하러 하려고 하려 그것이 장사 방해가 된다는 것은~~

~~어디로 더 후 어지러~~

그쪽 세계 장제인인 28년의 사건은 현재에 있지 않아서

잡은 수 없는데 노동자들이 일어난 분기까지

주야에서 그들은 진짜 시키려 한다고 건성이 될 ~~사상~~

될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라 진짜 ~~다~~ 된다.

정지기 서술 보란 공인 묘지야 동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정지 자체의 역사적 의미 때문이다. 두 번째: 독립묘지에 묻히려는 것을 영감으로 생각할 것이다. 셋째: 독립묘지에 묻힐 만한 사상은 유족이 잘 모르고 거절할 경우. 유족을 설득 하려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보란 공인 묘지는 전태일 묘사의 묘지에 있는 곳이다, 그가 불신화으로 복습을 끝낸 당시엔 해도 ~~그가 노동자~~ 그가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는 인물이라고 누가 생각 할 것일까, 그 이상적 열사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무엇을 주입을 당하였다,~~ 의 죽음 또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아비 ~~노동자~~ 할 일이다. 그런 그를 서술 보란 공인 묘지에 묻는다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에게도 영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서술을 ~~한~~ 것이다.

~~둘째. 그의 죽음은 독재정권이 부정하는 공인 묘지를 위하여 독재를 벗어난 폭력적 공인령 ~~의~~ 이념적~~
목적

둘째: 그의 죽음은 이 독재정권이 그 권력유지를 위하여 경악을 이념적 통제로 부러 오련히 벗어난 폭력살인 집단의 반들이 놓은 데서 비롯된. 대 국민 살륙행위의 경지로 벗어난 무모한 희생까지 ~~해라~~ ~~이 살륙의~~ ~~가~~ 그럼에도 살륙의 진상화

~~흔들어주고, 주권적 은혜라야 국부의 관심을 타산한~~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 과정 속에서 빛이 난 불타는 사태
또는 자임 지득의 결과로 불타 불타는 정국의 태도였는지

~~주권적 권위주의 관심을 보다 크게 주권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의 관심을 이 강제로 보므로
진상을 폭로하여 함께 주권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것

만이 이 같은 불행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 ~~것~~
생각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지권 서약로 되는 것이
유 합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지권 서약 정지권 서약로 되면 이권이 불투명~~
승인 사례를 인하여 행정권을 붕괴 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는가?

- ① 국민운동본부 취하기 목적은 선거 개혁이다.
- ② 이 조항은 강제로서 그같이 많은 사람이 보았는지
정권개혁을 위함인지 알 수 없었다.

③ 그 같은 방향으로 정권을 전복하고 국민 운동은 ~~있었는가.~~
 (정당한 비법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기들의 권력관 인정해 보려는)
 오로지 정권의 모순만 뿐이다.

전 국민에게 폭로하고 주권하려한 정국의 비리는
무엇이었는지 - 이사회 사명의 진상.

0. 22인 의원 2시경. 6~7시 여당의 노동자들이 폭도 관공 호령
로 가려고 했다. 사장이라 안리진의 부자집 민관들 다
하비 위해서이다. 경찰은 네거리에서 노동자들이
네거리로 진압하는 도로 나와의 구방향을 지키려는 3방향을 도로를
모두 차단 하고 싶었으나 노동자들이 네거리로 이른가 노동자

최후의 파편이 사건의 두꺼움은 ~~많은~~ 나날 정도로 위력이
 있는 살상 무기 인은 이제 밝혀져 있었다.
 이같은 살상 무기를 부류가 하지도 않은 상태, 아무 오해 없이
 고의로 유인하여 사살 하였다는 고의의 살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 오전 부검 결과 파편 4개는 오른쪽 가슴을
 뚫고 들어가 2개는 등에 ~~뚫히고~~ 뚫히고 2개는 흉포를
 관통하여 등에 ~~뚫혔다~~ 뚫혀 있었다. 가슴에는 90시씨의
 피가 2개 있었다.

여의 문 죽음이 분노해야 할 인이 ~~아닌가~~. 아니겠는가.

6개항의 증거는 세 길고 장래의 증거 역시 영기 하거나
 라라는 어떤 것이었는가.

• 이번은 다른 ~~부류~~ 보인 등 승의라야 쪽 사냥들은 ~~24~~ 24일 14:00
 경 작자 이 물건을 장지 들러서 함께 의논 하였다.

~~이들 장래의 부류~~ 증거의 증거는 일리된 의견이 있는
 이들 장래의 ~~부류~~ 증거는 내세우지는 주장은
 내기 강력히 하였다는 기억 있다. 그 이후로는

한편. 유족 보상의 물리적 장래 후에는 해결이 어렵다. ~~범주~~
 또한 책임은 내지 않는 것이 쉬우면 아쉽지 않은 만큼 해
 볼 사안이면 쉬우면 것이다. 그럼에도 23일 21:00
 유족의 회의를 ~~유족~~ 유족에게는 변호사들이 쉬우면
 해결을 할 것이요 어불성 언이 기버렸는데. 그 이후
 어느 쪽에서든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일도 반대로 없었다.

중요: 정연히 있어 할 증거는 24일이나 사건의 기미 없었다
 그래서 정연히 증거는 안된다 한 지라도 안안 물리적

정기반 있어야 한다 - (24일분) 가해인 구속 또는 약속으로 가능 할지 모르므로 장래를 무기한 고쳐 시킬 우려는 없는 말도 된다

셋째: 대역으로 보려는 신속히 하겠다 하고, 그것은 장래의 연결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타점 명명이라 별다른 보류가 타점 되지 않는 상태에 더 이 장래사 이 어떤 사태로 발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셋째만 문제는 내심 고려된 문제일 뿐 우리끼리 의논의 과정에서는 거론하지 않았고, - 노란에 붙여지는 것이었다

• 우리는 이 뜻을 노란에 권유하기로 하였다 24일 저녁 노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래의 무기한은 노란 보류는 결국 약해 시키기 위한 부력 이 아니었는지. ~~가해인 구속~~

~~결국 원해가 노란 노동자들의 부속에서~~

• 결국 상황을 분석하는 시각의 차이다.

우리는 문제의 수습을 원했다. ~~그 입장을~~ 후 노란들에게 제한 입장 자취가 그럴 지 모르, 그 입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역으로 ~~자취~~ 그 자취는 수습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자리~~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수습이 되고도 이권이 되고 말았지만)

~~24일까지~~
그러나 대역으로 노동자들의 상려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노란 노동자들~~ 시작할 때나 1인간이

무엇보다도 수습을 위해서는 결국 어느 인망이 양보 하거나 양보하는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 양보 하려면 노동자들
 내부의 논의 과정은 통일되어 있고 질서도 관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4일 까지 피우르산 노동자의 상태는 그것이 아니었다
 양보 8월 8일 농성이 시작된 이래, 본사도 노조가 있던 상태에
 서 노조를 선임 하는데 4일은 수비 했다. 그동안 노조 선임
 선의서를 회사에 갖다 내는 등 ~~부차 노조 부차 노조 1인부~~
 부차에서부터 어음 시비도 ~~특히~~ 내부로 시정받 히미 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그들의 형성 경리는 이미 한번
 거부당한 경험에 있는 만큼 지도력이 취약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석규의 사망으로 노동자들은 격앙되어
 있었다. 잘못 양보를 받아가는 지도부 또한 어음으로 불러 모으는
 특약사태에 날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 ~~25일 이후 청년운동~~
 (25일 이후 질서도 잡히고 집행부의 지도력도 확립 되어 갖는데 나는
 우리의 청년 활동가들의 ~~행위~~ ~~행위~~ 영향이 컸다고 받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우중 ~~밖에~~ 뿐이다
 받았다. 김우중은 양보 해주는 강한 뜻이, 그것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런데 여하하여 양신무나 민주정의당 (현지비도, 조사도) 들과
 상황 판단을 같이 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대우 분류의 극적 타결은 장래 무기연기 선언에서
 그 ~~한파~~ ~~중~~ 결재권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 보시 내는 생각한 순서는 보상금 받고 무기연기 → 김우중의
선심 → 노동자들이 감정 변화 → 노사 타결로 이어진
 것으로 구상 했는데. 김우중의 선심이 유족들에게
 미안 해년로 연결 되면서 장리 불거의 갈등으로 전환된
 것은 아닐지.

~~내가 볼게를 수습하기로 원했는지 물어 받은 받은 말로~~
~~보라 수습할 만한 근거는~~

이 변칙이 아닌 변칙이 이 행동은 시중 일치 하였는지

○ 나는 23일 10:00 경 도착 하였고, 이변칙사는 23일 11:00경 도착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례 위원회는 아마 이 사건은 이미 논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변칙사는 장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관여 하지 않았다.

○ 그 이후에는 계속 의논 하는 함께 했다, 라면 나는 26일 2시에 병원에서 나오자 이변칙사와 김신은 같이 먹고 ~~이변칙사는~~ 낮잠을 잔후 16:00 경 이변칙사는 병원으로 도착하고 나는 잠을 자다가 부산에서 돌아오는 연락을 받고 ~~18:30~~ 18:30 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 일은 보른다

○ 내게 있을 동안 모든 논의는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고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모두 책임이 내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 오히려 그가 한 일은 모두 몰랐기 때문에 함께 키이르 왔다.

라면: 24일 15:30 이후 노조와 장지분제 논의시 나는 김봉조위원이 구속지 수명 고집에 따라 갔다 왔고

그날 저녁 20:00 경 장례 무가 연기 논의에는 노조 사무장의 회답이 못처럼 하여 ~~취리에 분담~~ 논의에 분담했다. 25일 16:00 경 이변칙사가 유족을 만나 장지 분제를 성취 할 때는 나는 뒤늦게 가보니 이야기를 마치고 노조는 권이르 선결하는 ~~한마디~~

보태고 나왔다. — 이 부분은 왜곡된 사실과 ~~부합~~ 거는 것일뿐이고. 오히려 결재각인 사건에 내게 빠진

~~것은 소극적 인가 부족하다. 특히 24일 러미의 변칙 장례~~

장례 무거운 거 결재시 내기 원칙 포기 한 것은 두고두고
 나를 부끄럽게 했었던 일이다. - 결국 분개 라결의 계기는
~~공공은 공은~~ 이번 호사기 만든 것이다.

하루 하루 ^{세로} 오늘은 카바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변해하는 상황에 성실히 대처했다.
~~이런저런~~ 이런 그때 내기 그에 대하여 느끼는 심정을 ~~동지애~~
~~라한~~ ~~말하면~~ ~~아달~~ ~~등하~~ 그런것을 동지애 하는것 아닐까?

이 번 호사나 노병호사 있기 볼 수 없을 원리였다는 말은, 믿을만한
 분과 선동력 있는 근거는 (언론과 정부에 하는 물이 보치니까)

① 내 개인적 인식 : b. r 이후 처음 부산에서 노사분규의 파기가 나왔을 때
 나는 우리 권운이 들을 만날 때이다. 작음 따르던 것으로 작음승리를
 만들고 그에 뒤집어 노조 설립. 할 때. 노조는 주위의 작업으로 장기간
 으로 노조 활동 해로 노동자 ~~취업~~ 신장분 위한 발언을 만들어야지
~~불합~~ 어떤 이유로든 수습이 잘 되지 않는 극한 태도이며 장기간 분규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극한번의 고통을 안겨주 줄 것이다 우려하는 뜻은
 많았다. 심지어 어느 ~~기관~~ ~~노동~~ ~~선~~ ~~내~~
 나서서 노동자들 한 번 선동 하는 데 보면 어떻게 하고 ~~부~~
~~부~~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다. (국기라 쪽에).

② 우리가 가졌을 동안 본래의 할 때. 약하게 가거던 줄 우리에 대한 비난
 이나 법적 거리에 대하여 우리가 개 손드였는지 - 수습되던 후에
 새사람 주는 판중에 --

③ 부검관 예는 노동자들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부검관과 ~~노동~~ ~~대~~
 성리를 높이는 것이다. - 약하게 원리사정이 이런일에서 데 키웠는지?

④ 25일 리나. ~~부~~ 양신부기 ~~허~~ ~~노~~ ~~들~~ ~~감~~ ~~한~~ ~~때~~
 이번 호사나도 함께 노동자들을 선동 하기 위하여 ~~함~~ ~~성~~ ~~하~~
~~하~~ 23일 이 번 호사를 양신부에게 15.000원, 15.000 원 ~~양~~ ~~성~~ ~~하~~
 권해 보신들 ~~구~~ ~~해~~ ~~하~~ ~~는~~ ~~성~~ ~~의~~ ~~를~~ ~~보~~ ~~았~~ ~~다~~, ~~다~~ ~~는~~ ~~것~~ ~~을~~ ~~김~~ ~~봉~~ ~~조~~ ~~의~~ ~~원~~
 이 행성을 하고 있을 때에 김의원을 ~~함~~ ~~의~~ ~~원~~ ~~을~~ ~~함~~ ~~의~~ ~~기~~ ~~는~~ ~~같~~ ~~은~~ ~~취~~ ~~지~~ ~~기~~ ~~증~~
 제기안을 제기한 것이다. - 69 -

4, 언론의 보도에 관하여,

~~언론은~~ 언론보도에 관하여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 하고 싶다
첫째는 사실의 문제이고, 둘째는 태도의 문제이다

① ~~사실의 정확성과 사실의 진실성이 보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② ~~그 외에도 보도~~

사실 문제 즉 보도의 진실

보도 불투명성에는 그 불투명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문제이다.
그런데는 보도 자기 회의 원인, 사회적 회의 원인
사실의 원인 등이 심층 분석 되어야 한다. 장래 보도는
수습을 위하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 해야 할 것이다 — 언론은 어느 것을 했는가?

① 불투명의 원인 — 임의, 불충분, 기리 불충분 ~~에 대하여는~~
~~임의에 대하여는~~ 저임금, 때때로, 인신감시, 엄한 처벌
관리 부실, 미비한 제재 등 심각한 문제들이
~~관련된 문제들~~ 언론에 사실로 보도 되고 있다.

② 불투명의 자기 회의, 사회적 회의 원인이 어디 보겠는가?
에 관하여 ~~관련된~~ 서로 있는 취재도 보도도 보지 못하였다.

③ 우선적인 수습을 위하여 두가지 엄격한 양보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된다 — 이점에 관하여는 잘 분석해 보면
양보를 할 수 있는 점, 양보를 해야 할 점, ~~양보~~ 을 잘 선택
하여 언론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정부나 국민의 양해를 적극적으로
통화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것이 지니친 시도라면
각어도 양극화한 보도도 갖어야 한다 — 예컨대
조선민주주의주의의 원인은 불충분해 보면 — 상당부분 대우를
업 네 북로 유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장 적인 문제.
~~언론~~ 적외선 관계기 모두 중립이론인 점, ~~기타~~ ~~언론~~의
경영상의 관념이 불합치에 의 오는 양이, ~~등~~
등이 있는데, 적외선 관계를 보도 할 때는 이러한 모든 것

함께 취재 보도 해야 할 것인데, 취재 보도도
못 보았다. — 자판은 이신 안으로 갔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을 노동자들이 지적하는 데도 경미
하게 죽어도 보도하지 않았다. — 그것은 1월 31일에
집을 캐리기에 ~~완전 시가~~ 놓고 ~~일어난~~ 놓는 —

왜곡 보도 등

~~이 불행은 구제처, 사실의 불행이 되기 보라~~

① ~~왜곡 보도한 것은~~

왜곡 보도

구제처에 어느 사실의 불행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슬퍼 슬퍼 기어다니며 ~~전혀 다른~~
분위기의 흐름을 왜곡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데는
영광 놓이지 않는다고 한다

24일 저녁, 25일 아침 연이 날랐던 ~~앞서~~ 장악 부위
각시들이 데스크에서 취재방향을 따라 리시게 따라 갔다 했는
삼지이는 ~~과도~~ 리시게로 가오면 전례동으로 데스크이 되어
모습이 바뀌어 온 것이다.

25일 저녁 K, B, P의 보도는 왜곡의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주 테두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어떻게 사정 주었으며 어떤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안고.

왜곡 보도의 본질은 ~~원인~~ ~~원인~~ ~~원인~~
왜곡의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